

“새 정부는 지역영화 생태계 되돌리길”

尹 재임 기간 무너진 영화 생태계
지원금 축소·사업 폐지 등 잇따라
예산 복원 등 구조적 지원 필요
“지역 불균형 해소할 정책 마련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영화계에선 “영화산업의 봄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지역 영화 산업에 대한 확대와 지원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화인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지역 영화계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너진 지역영화 생태계, 다시 세워야”
15일 영화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지역 영화산업은 지원사업 통합과 삭감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정부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예산 중 지난 2018년 시작된 ‘지역영화문화활성화 지원사업’과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사업’ 등을 시행 5년 만에 전액 삭감했고 ‘지역 영화 네트워크 허브 사업’을 전면 폐지했다.

또 그간 국제·국내영화제를 별도로 지원하던 제도를 국내외 영화제 지원사업으로 통합해 지원금을 절반 수준으로 삭감

하며 여러 지역의 영화제가 폐지되거나 축소 운영됐다.

매년 영진위 국내영화제 지원금을 받았던 광주여성영화제 또한 이같은 통합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영진위가 2023년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한 영화제는 40개에 달했지만 지난해 10개로 대폭 줄며 광주여성영화제가 선정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광주 영화인들의 반발이 빚발쳤고 영진위는 지원 규모와 내용 등을 일부 수정해 올해 광주여성영화제를 포함한 20개의 영화제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총예산은 이전 수준에 못 미치며 지난해와 크게 변동이 없어 지역 영화가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과 지속적 지원을 마련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지역 영화인들의 주장이다.

김재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영진위의 지역영화 지원 예산이 복원되는 게 중요하다. 최소 2023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야만 향후 지역영화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정책·창작 연계 프로그램 필요”

지역 영화계는 영화인 간의 연대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버텼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



지역 영화인들이 지역영화 활성화를 위해 광주독립영화관과 광주극장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국내 유일의 단관극장인 광주극장. **광주극장 제공**

광주에서 활동하는 허지은 감독은 “지난해 영진위의 지역영화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때, 국가가 지역에서는 영화를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였다”며 “작은 영화, 실험적인 시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전부 도태되는 분위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삭감됐던 지역 영화 예산을 복원하고, 영화인들이 창작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정책과 창작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탈북 미혼모의 삶을 다룬 영화 ‘명옥’을 연출해 화제를 모았던 이진혁 감독은 “최근 OTT의 강세로 영화라는 매체의 힘과 극장 산업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라며 “지역 예술인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웹툰, 웹소설, 다큐 등 다른 콘텐츠와 연결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전략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

다”고 제언했다.

●“영화계의 봄”, 지역에서부터 시작돼야
영진위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국내 및 국제 영화제 지원 사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0개 영화제가 선정됐으나 이중 광주·전남 지역에서 열리는 영화제는 2개(광주여성영화제,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에 불과했다.

반면 12개 영화제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영화계는 새 정부가 지역영화 지원 예산 복원과 창작자 중심의 정책 설계,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영화인 A씨는 “다양한 영화 문화 활성화를 위한 뿌리는 지역영화에 있다는 것을 새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지역영화 활성화를 위해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광주독립영화관과 광주극장에 더 많은 관객이 올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기반 영화인 B씨는 “단순한 예산 복원만으로는 부족하다. 네트워킹, 관객과의 만남, 상영 기회 등 영화 제작과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지역이 배제되지 않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단언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광주문화재단, ‘아트광주25’ 참가 갤러리 공모

내달 16일까지 이메일 접수
온오프라인 홍보 등 혜택

광주문화재단은 국제아트페어 ‘2025 광주국제미술전람회(아트광주25)’에 참여할 국내외 갤러리를 다음달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5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아트광주25’는 오는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국내외 역량 있는 갤러리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본격적인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며, 참가 자격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소지한 국내외 갤러리다. 장르는 회화, 조각, 판화, 사진, 설치, 미디어아트, 공예, 서예 등 미술 관련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참가신청서 내 부스 타입(S, A, B, C type)별

규격과 판매가격을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하며, 갤러리당 부스는 2개 이상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지된다. 참가 부스비 납부, 도록자료 제출 등 추후 일정은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아트광주25’에 참여하는 갤러리에게는 행사 기간 내 호텔 숙박, 런치박스, 행사 진행용 비품과 아트상품,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갤러리는 광주문화재단(<http://www.gjcf.or.kr>) 또는 아트광주 홈페이지(<http://artgwangju.co.kr>)에서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artgwngju-official@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박찬 기자

광주대 호심기념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성료

정보 활용 역량 강화 호응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 1층 호심스튜디오에서 지난 10일 열린 ‘2025학년도 호심기념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광주대 구성원의 학술 정보 활용 능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전자정보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현장에는 DBpia, KISS, e-article, 스콜라, KRpia, EBSCO 등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 업체들이 교육 부스를 운영하며, 이용 방법과 학습 노하우를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디지털 잡지 플랫폼인 ‘모아진’과 온라인 강좌 ‘에듀윌,

국가기술자격증’ 등 실생활과 학업에 유용한 전자 자원들도 함께 소개됐다.

행사에는 16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전자정보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으며, 부스별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학부 수업, 보고서 작성, 논문 준비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박성우 호심기념도서관장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술정보 활용 능력은 대학 생활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지속 기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광주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꿈여울원정대’ 본격 시동

지난 11일 발대식·레크레이션 활동
자전거·도보 탐방, 지도 제작 등

광주 일곡청소년문화의집(당근센터)은 지난 11일 ‘꿈여울원정대’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아동권리 교육과 팀워크를 다지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꿈여울원정대’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마을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대표적인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매년 참신하고 창의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마을을 새롭게 조명하며 지역 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바퀴로 Green 우리마을’을 주제로 자전거와 도보로 마을을 탐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청소년들은 자전거안전교육을 받은 뒤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자신이 사는 지역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를 얻는다. 연말에는 활동 경험과 제안



광주 일곡청소년문화의집(당근센터)은 지난 11일 ‘꿈여울원정대’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아동권리 교육과 팀워크를 다지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했다. **광주 일곡청소년문화의집 제공**

내용을 정리해 ‘복구 아동정책제안대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UN 아동권리협약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 교육이 함께 진행돼,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팀워크

를 다졌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였다.

당근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권리를 인식하며, 지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라며 “지역사회도 함께하는 아동 참여 문화가 계속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윤상원 열사의 민주 정신 영상으로 되살리다

‘청소년 짧은 영상 작품 공모전’
내달 9일까지 윤상원기념관서

윤상원기념관은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맞아 ‘2025 윤상원 기억과 실천 청소년 짧은 영상 작품 공모전’을 다음달 9일까지 개최한다.

15일 윤상원기념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전남도청의 마지막 밤을 지켰던 청년 윤상원 열사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오늘날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3분 이내의 짧은 영상 작품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작해 참가신청서와 함께 이메일(ysw8005@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다음달 27일 윤상원 열사 45주기 추모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1작품)에는 상금 100만원, 은상(2작품)은 각 70만원, 동상(2작품)은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 참가신청서는 윤상원기념사업회로 문의하거나, 관련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